

# 번역의 수준 높이기

潘星完

한양대 교수·독문학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간되고 있는 책의 상당한 부분은 외국어로 된 책을 번역한 것이다. 그동안 번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또 번역에 관해 이런저런 비판이 있어왔지만, 정작 번역의 질과 수준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 방안을 두고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한 보다 진지한 연구와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및 방안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첫째, 번역은 고도의 정신적 집중력과 전문기술을 요하는 정신노동이다. 따라서 번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노동에 상응하는 물질적·정신적 代價가 지불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번역가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는 저작권법이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번역은 고도의 학문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오랫동안 외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고 또 각 분야의 학문에 종사해 온 전공자들이 양질의 번역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들 전공자들은 번역을 도외시하거나 아니면 등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번역에 기울인 노력에 비해 물질적·정신적 보상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문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전공자들에게는 번역은 자신의 학문적 업적이나 명예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별 볼일 없는 작업이 되고 마는 것이 보통이다. 하나의 고전적 문학작품이나 중요한 저서를 번역하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학문적 노력을 필요로 하고, 또 한편의 제대로 된 번역은 한편의 논문이나 한편의 저서보다도 더 큰 학문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학문적' 번역은 마땅히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학문성'(scholarship)의 일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학문적 번역을 학문적 업적의 중요한 척도로 삼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치는 번역의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 전문 번역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번역은 학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고도의 언어적 숙련성이다. 특히 문학작품의 번역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외국문학과가 있지만, 이러한 방향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전문기관이나 학과가 없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 속에서도 아니면 별도로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전문 번역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컨트롤하는 작업방식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번역은 언제나 誤譯을 동반한다. 오역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번역보다는 집단번역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리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번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번역비평을 주로하는 전문저널이 하나쯤은 나올 필요가 있다. 설령 그것이 안되더라도 기존의 계간지 서평란에, 잘된 번역과 잘못된 번역을 가릴 수 있고, 또 번역의 여러 문제점들을 학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번역비평란이 따로 마련되는 것도 번역의 전체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번역이 우리 문화의 창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방안이 보다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표지인물	2 「資本論」 국내 첫 완역한 金秀行교수
시평	4 월북작가 문학사 수용의 현단계/ 서준섭
나의 학문, 나의 저서	6 더디고 먼 길—「歷史의 方法」을 쓰고나서/ 梁秉祐
서평	8 저드슨外 「21세기의 과학」—李成奎 朴權相 「권력과 진실」—崔一男 9 마이어 사피로 「현대미술사론」—金英那 宋芳松 「東洋音樂概論」—權五聖 10 金景中 「韓國의 經濟指標」—吳景熙 金宇鍾 「순수문학비판」—申東旭 11 박영한 「내 친구 빠베용」—金鍾會 이인성 「한없이 낮은 숨결」—정한용
해외정보	12 법제화 추진되는 '출판자의 권리'
세미나	13 西獨도 '카피' 이용에 요금 부과
지금 독서중	14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회사원 金熙東씨 라즈니쉬의 「여기에 살다」—직장인 김현숙씨 15 바스콘셀로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아트디렉터 양영희씨 빅토르 하라 傳記 「끝나지 않은 노래」—노래운동가 崔炳仙씨
얼굴	16 講談社 출판문화상 받은 일러스트레이터 康禹鉉씨
출판화제	17 치열한 현실인식 담은 작품집 「풍년」
작품구상	5 장편 「꿈을 짚는 印書紙」/ 李在仁
화제의 책	3 북한언어연구회편 「북한의 언어혁명」 7 「吳泳鍾 全集」 전 5권
특집	19 책과 思索이 있는 散文選
	20 책을 사는 보람
	24 책을 읽는 의미
	28 책을 읽는 재미
	33 책읽기의 기술
	37 책의 주변
세계의 출판	42 소련에서 재평가되는 슬제니친·外 44 신간안내 52 200자 안내 54 어린이책 들춰보기
실용도서	18 현대인의 처세술과 성공요령 56 신간목록 58 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
데스크 칼럼	60 책의 영향 평가/ 李重漢 독서퀴즈/ 정기구독 안내